

2006 기관탐방 ⑧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양기원 조합장

“포천축협이 축산업 中心이 되겠습니다”



우수조합원에 대한 축산자재 지원과 산유능력 향상을 위한 검정사업을 확대했으며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통해 친환경 축산을 전개하는 한편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질병예방에 노력해왔다.

신용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주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이용대회를 통한 조합원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으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판매전략 및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통한 고객에게 한결을 다가갈

려하고 있다.

가공사업은 경기도맞춤농장사업으로 선정되어 육가공공장을 신축중에 있어 본격적인 가공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 조합장은 2006년도에는 5월 말 완공될 육가공공장이 신북면 가채리에 완공됨으로써 1일 돼지 200두, 소 20두를 가공할 수 있어 포천축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부녀회조직을 강화하여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우수조합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농촌조합, 도시조합의 역할분담을 통한 농촌지역 생산, 도시조합의 판매기능을 복합하여 도농조합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천축협은 2006년도 주요 교육사업으로 축산계 운영지원으로 14개 축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 7천2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우수 검정사업으로 마홀촌검정회에 6천92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보존사업으로 신고대상 농가 이하 축산분뇨를 무료 수거하는데 4천580만원을 지원하

육류 전문 브랜드 마트빌 유통시장 進出

“2005년은 축산업의 일부 축종을 제외한 전반적인 호황 속에서도 유사비의 지속적 상승과 맞물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밀려오는 파도에 대비하는 한해였으며 포천축협은 지난해 경기도 맞춤농정 사업에 선정되어 포천지역의 축산업 육인 사업이던 육가공공장을 오는 5월경 완공하여 조합에서 새롭게 개발된 육류 전문 브랜드인 마트빌을 통한 유통시장에 뛰어든다”고 밝히는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양기원 조합장을 만났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수금 1천 230여원을 조성했고 대출금 1천 190여원을 판매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경제사업중 구매사업은 조합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마홀촌 배합사료는 조합원의 적절한 이용과 품질에 대한 평가로 마홀촌 사료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일반 사료업체의 경쟁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료값 인하 등으로 양축가에 대한 원가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축분수분조절용 왕겨제품과 여성조합원 및 조합원 부인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양 조합장은 또 액비유통센터, 축산분뇨 부숙제 보조사업, 수의 진료사업, 축산물 유통망 구축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열려있는 축협, 변화하는 축협, 봉사하는 축협’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축분 액비유통센터에 2천30만 원을 지원한다.

주요행사로 우수조합원 초청 행사에 5천만원, 우수조합원 가족 초청행사 1천500만원, 대가축 품영회 및 축산물 판매 홍보에 2천600만원을 투입하고 방역약품 지원 및 정비 무상 수리에 3천 500만원, 사료 이용 우수거래자 축분용 왕겨 구입 지원 2천500만원,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 환원 사업으로 계약수의사 및 축분처리 지원 5천320만원, 마홀촌 양돈 계열화 농가 종자 통일 보조금 2천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양 조합장은 2005년도에 포천축협은 내적으로 경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개혁과 체질개선에 노력했으며 의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사양관리 교육 및 각종 행사 등으로 조합원간의 유대강화와 소비자에 대한 이벤트행사와 다양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확립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도관리면에서 조합원 및 축산농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축종별 사양관리교육 및

판매사업은 군남 및 계통출하사업이 전년 대비 148% 성장했으며 가축계열화사업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기능을 수행했다.

마트사업은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 대하여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고 판매 학교급식에 대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포천지역 학교급식을 전담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

특히 정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FTA(양자간 자유무역협정)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공산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우리 농·축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 조합장은 포천축협이 추진하는 육가공사업은 수입육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우리 축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포천축협과 인양축협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일동재래시장 새롭게 단장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오는 22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일동재래시장의 전경이다.

환경개선사업 마치고 오는 22일 開場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재래시장’이 2005년 6월 착공하여 지난해 말 환경개선사업을 마치고 오는 22일 새롭게 개장된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대형 마트와의 경쟁과 경기침체로 손님의 발길이 멀어져 가는 재래시장을 현대화된 쇼핑공간으로 개선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포천시는 이번 일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현대식 아케이드로 바꿨고, 시장 후면부 교량을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 8.6미터 교량으로 교체했으며, 폭 2.5미터의 인도를 설치해 보행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발생 시 경보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불을 끄는 ‘24시간 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물탱크와 자가펌프 등 자체 소방시설을 구비했다.

아울러 70면 규모의 무료주차장을 설치하고 150톤 규모의 대형정화조를 설치해 일동시장골목을 특화된 먹거리지역으로 새단장 했다.

포천시는 산뜻하게 단장된 시장 내·외부와 편리한 주차장시설, 먹거리골목 등으로 인해 시장경기가 되살아나고 지역경기도 부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주)동일공업사

토탈 자동차 정비 메카로 자리매김



대표이사 이종현

“고객을 위한 철저한 정비”로 고객이 맡긴 전차량을 우수한 정비진의 검사, 점검, 도장, 관공, 하체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완벽 한 수리와 A/S로 자동차 정비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주)동일공업사(포천시 소흘읍 이가말리 324, 대표이사 이종현).

지난 1993년 설립해 14년동안 올바른 자동차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주)동일공업사는 미래형 자동차 정비를 지향하며 고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업체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최첨단 설비와 우수한 정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주)

동일공업사는 이러한 경영을 토대로 지역 내 기업체와도 끈끈한 인연을 맺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삼성, 현대, 엘지, 동부 등 국내 특급 보험사들과의 업무 제휴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보험사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토박이로서 다년간 (주)동일공업사를 지역의 으뜸 정비업체로 운영해온 이 대표이사는 “나 개인의 실익보다는 고객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까지 정비업을 운영해왔다. 외환 위기 때 온갖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다행히 운이 좋아서 슬기롭게 고비를 넘긴 것 같다.

여기에는 변함 없이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역 내에서 처음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할 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소방대와 방화대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고와 차량의 고장으로 추운 겨울이나 밤늦은 시간대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운전자를 목격했다. 그 이후 하던 사업을 접고 자동차 정비업을 선택해 현재까지 천직으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흘읍 이가말리 고항인 이 대표이사는 14세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당시 선배들로부터 4회장을 위임받아 철부지 어린 나이지만 용기와 관심을 갖고 농촌활동을 전개 해온 장본인이다. 한

선진국형 자동차 정비문화 정착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고객중심의 경영

동일공업사는 1천5백여명의 부지를 이용해 검사장, 엔진보링, 정비·관공·도장부까지 각 분야별 독특한 기술력을 주 무기로 고객의 차량을 정비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여기에 고객을 위주로 한 진단과 수리로 신속, 정확,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공간과 직원들의 종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크린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재해 없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시로 안전의 생활화를 주문하며 올바른 작업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서비스 항목에서 24시간 렉카 및 구난 서비스, 시간에 쫓기는 고객들을 위한 예약정비는 경쟁력 강화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주)

때 정부의 퇴비증산장려로 전 국민이 퇴비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당시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 포상으로 송아지를 받아 온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봉사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현재 소흘 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능력 있는 임원으로 주위에서 인정받고 있다.

호탕한 성격과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한 이 대표이사는 월 2~3회 직원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개선 사항 등을 추진 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고객들에게 겸손과 친절은 (주)동일공업사의 얼굴임을 강하게 주문하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

문의 전화 031)541-6000, 011)248-3160
정병남 기자 jpk61@paran.com



지난 1993년 설립해 14년동안 올바른 자동차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주)동일공업사는 미래형 자동차 정비를 지향하며 고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업체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연말정산때 공제 받지 못한 것 확정신고나 경정청구 통해 세금 환급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편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70세 이상 15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백화점 신용카드를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이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법정 신고기간 1과 2 중 택일 가능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 청구조건

-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1)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서류)
- 2) 청구가능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등
- 3) 관할 세무서
 -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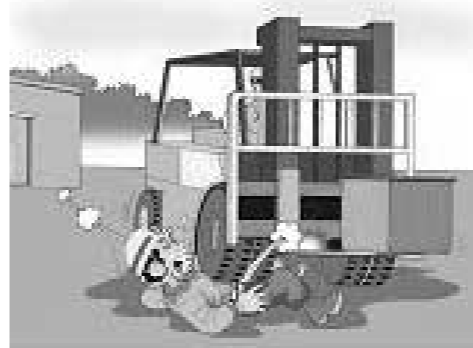
산업안전사고 예방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추락

주물공장 후처리작업장에서 작업장 청소 등 정리정돈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사가 담긴 철재통을 비운 후 지게차 포크에 재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재해자가 포크에서 떨어져 지게차 바퀴에 협착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발생 원인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하나 화물을 운반하는 포크 위에 근로자를 탑승시킨 채로 지게차를 운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 자격자가 운반 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작업을 실시하여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동종재해 예방대책으로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를 제외하고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해야 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



재해발생상황도

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지게차운전을 금지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키를 소지하여 임의의 지게차운전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본인 납부 국민연금 담보로 전세금 등 대출이 가능한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국민연금 담보대출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8년 5월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 임금삭감, 금리인상 등으로 실직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불입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당시 담보대출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로 대부분 현재 실직자였으며 납부한 보험료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 줬다.

대출 기간동안 총 24만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평균 330만원(총 7천80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대출받은 사람의 90%가량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국민연금 불입액으로 상계 처리했다. 이 결과 1인당 8년 가량의 연금 가입기간을 까먹어 노후 소득 사각지대에 빠질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 별도로 연대보증인 등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로 대여하는 ‘생활안정자금’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 설정공란 등으로 대부분 실질적이 저조했고 낮은 수익률, 높은 연체율 등이 문제가 발생했고, 유사정 책기금과의 사업중복으로 인해 2004년부터 중단됐다.

최근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이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순순한 해결책으로 국민연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해 준 은행권과 채권자만을 위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입이력이 삭감된 이들이 노후에 더 커질 것이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